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6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겸 손

(집회 3,17-2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0장 '생활한 제물'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겸손한 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 주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화해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집회서 3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얘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18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19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 주신다.
20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21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네 힘에 부치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22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23 네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네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24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악의에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그르치게 한다.
25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소리
치지 마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겸손이 미덕이긴 하나 언제까지 겸손할 수만은 없다. 겸손과 소극적인 태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겸손하되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의 시대이고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은 늘 자신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은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차이가 난다하여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맞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은 늘 인간과 자연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아드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겸손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성취한 일에 대한 보람은 살아가는 힘을 북돋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해 줍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우리 각자가 한 달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을 정하시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이달에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0장 '생활한 제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궁금 했어요

견진성사 때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세례 때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축복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세례명으로 흔히 성인의 이름이 선택되지만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의미를 지녔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아쑴따', 성탄을 뜻하는 '노엘' 등이 있지요.

수도자의 경우에 세속에 죽고 새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새 수도자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신자들이 견진 때에 세례명을 변경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정신에 옳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는 교회법 제866조의 "세례받은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않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호를 부여받는 완벽한 성사입니다. 세례는 견진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세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입문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와 견진을 함께 받을 것을 권합니다. 다만 견진 성사는 주교님께 유보된 직무이며 모든 세례식에 주교님께서 참여하는 일이 불가능한 탓에 세례와 견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입니다.

세례명을 선택할 때 생일 날짜에 꿰맞추는 무성의, 나중에 고칠 꼼수를 부리기보다 단디 생각하고 매매 기도하며 번거로운 고민을 피하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44, 장재봉 신부 저

평화를 빕니다.

진주시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저희 장재 성당은 1898년에 초가집 300냥으로 시작되었고, “아기예수의 성녀 소화 데레사”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역사 깊은 성당입니다. 공소에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신자 수를 늘려 1938년 5월에 제 1대 김준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오셔서 본당으로 승격되고, 육영사업과 문맹퇴치를 위한 사목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성당은 전형적인 시골 향기를 풍기는 마을로써 구교우로 연세가 높은 신자 분들이 많습니다. 신자 대부분이 홀로 고향을 지키고, 자녀들은 설,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인구 감소와 동시에 신자 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소공동체 모임이 힘들어지자 반은 없어지고 구역으로만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공동체 구역도 1,3,5구역으로 3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소개하고자 하는 저희 5구역 소공동체는 본당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세 구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조금은 젊은 자매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600여 세대가 되지만 시내버스 차편이 드물게 배정되어 있어, 성당에 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자 수도 적고 교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공동체 구성원들은 불편한 교통 여건 속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차량 봉사를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를 통해 하느님과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모임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때론 야유회를 통해 친교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소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본당 신부님의 사목 지침 중 하나가 "쉬고 있는 형제, 자매를 적어도 한 명씩 회두 시키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5구역에서는 한 동안 쉬고 있던 자매님을 열심히 권면하여 반 모임에 나오게 하였고, 현재 그 자매님은 밝은 웃음꽃을 피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5구역은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하여 쉬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 열심히 회두 권면하여 더욱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 소공동체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어 용기와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 진주 장재성당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